

코오롱-인디아 Tata 협력관계 모색

타타 회장, 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협력관계 논의 ... POSCO 기술력 관심

인디아 최대 재벌인 Tata Group(타타그룹)의 라탄 엔 타타 회장이 POSCO 이구택 회장, 코오롱 이웅렬 회장 등 재계 CEO들을 잇따라 만난 것으로 확인돼 대우상용차에 이은 타타그룹의 추가 국내 진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탄 엔 타타 회장은 6월11일 타타그룹 자회사인 타타모터스의 대우상용차 인수로 새롭게 출범한 타타대우상용차의 신차 <노부스> 출시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타타 회장은 신차 발표회에서 “타타대우상용차는 타타모터스와 대우상용차가 가진 기술 및 제품개발의 강점을 결합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 상용차 부문의 새로운 강자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타타대우상용차는 대형부문에 이어 2005년께 중형 트럭부문 진출도 추진 중이다.

특히, 타타 회장은 신차 발표회 참석에 앞서 코오롱 이웅렬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관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타 회장은 이에 앞서 3월 말 대우상용차 인수 조인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POSCO 이구택 회장과의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타 측 관계자는 “타타 회장은 철강 부문에서 POSCO의 앞선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스코를 배우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POSCO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 회장과의 만남에서 추가 한국진출 및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타그룹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얼굴 알리기와 한국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타 회장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부러운 눈으로 보아왔으며 타타그룹 차원에서도 한국기업과의 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구체적인 업종이나 기업명을 거명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여러 산업분야에서 한국기업과 타타그룹 간에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언급해 국내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1860년에 세워진 타타그룹은 자동차, 철강, 기계장치, 에너지, 화학, 금융업, 서비스, 정보통신시스템, 차(茶) 등 25개 산업에 진출해 있는 인도 최대의 재벌그룹으로 85개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다.

그룹 내 가장 큰 계열기업은 타타모터스로, 타타 회장이 그룹 회장 겸 타타모터스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타그룹과 국내기업간 철강, 섬유, 화학 분야 등에서의 활발한 협력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며 타타그룹이 대우상용차 인수를 발판으로 앞으로 국내기업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체결해 추가 한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6/14>